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고린도전서 1:18-31

저는 큰 새우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순어법입니다.

'모순어법'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oksús" (날카로운, 뾰족한)와 "môros" (둔한, 어리석은). "môros"에서 영어 단어 'moron'이 나왔습니다. "oksús"와 "môros"를 함께 넣으면 '날카롭게 둔한' 또는 '뾰족하게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에서 모순어법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 이 함께 사용될 때, 역설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순은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종종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모순어법은 장난스러운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그 농담은 진지하게 웃겼다," "그 스테이크는 끔찍하게 맛있었다," "나는 큰 새우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당신은 분명히 혼란스러워요" 등이 있습니다. 일부 모순은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지침이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으로 이끌었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물을 끼얹는 침묵을 의미하며 불만이나 반대를 나타냅니다. 만약 당신이 지침을 내렸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모순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 지혜가 어떻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 미련할까요?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를 세 가지 예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미련한 방법 (18-21절);
- (2) 미련한 메시지 (23-25절);
- (3) 미련한 구성원들 (26-31절).

먼저, 미련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 중에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며,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이는 십자가가 죄, 죽음, 그리고 악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핵심 신념, 사 방식, 가치관, 행동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면이 조금 있지만 약간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상실됨의 측면에서 완전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완전히 길 잃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고 눈먼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완전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의 죽음이 어떻게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사야 29:14를 인용하며 그의 논쟁에 강한 강조를 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

그리스어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통일된 이성의 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성 원리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형상과 의미를 부여하며, 변화하는 것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를 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의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 지혜의 비밀을 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인 지혜의 추구 속에서 그들은 깨달음을 더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려는 이러한 추구는 오늘날까지 학문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과 과학 분야의 학과들은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종종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배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엄격한 학문적 연구나 과학적 탐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학문적 연구와 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선하며, 진리는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믿음과 합리적인 사고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증거와 타당한 이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지혜가 가진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도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MAiD (의료적 조력 자살)의 인간적 지혜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노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비로운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코틀 박사는 WSBM 공개 강연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10%가 치사 주사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은 제외). 그녀는 현명하게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하거나 그 분이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샬롬(평화)이 오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MAiD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의료적 살인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것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960년대 성혁명과 우리 시대의 트랜스젠더 운동을 포함한 인간 지혜에 대한 반대일 것입니다. 성혁명의 전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성관계는 줄어들고 고립감은 커졌으며,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한 세대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빈번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이성애자 부부들입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성혁명의 모순을 잘 설명한 책을 읽고 싶다면 루이스 페리의 *The Case Against the Sexual Revolution*을 읽어보세요. 급진적 페미니스트 배경에서 온 저자는 이 운동의 역사를 서술하며 놀라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없이 모든 것을 결합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지혜를 무효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인간 계획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없애실 것입니다.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유대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즉,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사는 전문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찾고 그들의 전문 지식에서 그들의 지위를 얻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제한된 이해 밖의 모든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없이는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 철학자 G.K. 체스터턴은 "칼라일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리석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더 확실하고 경건한 현실주의로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고 말한다. 이 교리는 때로는 원죄의 교리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평등에 대한 교리라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G.K. 체스터턴, 이단자들).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종과 언어, 교육을 받은 자나 못 받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를 모두 같은 수준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두 취소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이고 지적인 사변과는 무관하며,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고 논쟁 기법을 사용하며, 소셜 미디어와 할리우드 영화, 가상 몰입 경험과 같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동조하는 대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가능한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지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약하고 어리석고 인상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것은 고대, 현대, 포스트모던 또는 메타모던의 지혜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슬프게도, 자신을 깨우쳤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며, 속임수에 취약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3-4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내러티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그들을 진리로부터 눈멀게 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십자가의 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에 대한 두 번째 예, (2) 미련한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전통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어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위대하고 강하며,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했습니다. 약하고, 버림받고, 수치스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주장을 입증할 신적 능력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많은 강력한 표적들 이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스칸달론" — 즉, 스캔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잔인하고 경멸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범죄자, 반역적인 노예, 그리고 정치적 적들에게만 집행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과 "메시아"를 함께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된 거친 십자가"와 같은 감상적인 찬송가도 없었고, 십자가가 장식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나 금으로 된 장신구, 대리석 제단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지혜(논리적 추론, 통찰력, 지식)를 추구했습니다. 이 지혜 추구는 그리스 문화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 지혜에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철학 체계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승을 미화했고, 고통이 아닌 안락과 자기만족을, 겸손이 아닌 명예와 지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권력은 신과 여신들의 피라미드에서 그들의 권력 순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위는 신들과 여신들처럼 숭배되었습니다.

스포츠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파워 랭킹을 이해합니다. FIFA 파워 랭킹에서 캐나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20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캐나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그들은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1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신과 여신들의 파워 랭킹을 인간 관계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지혜로운 자들은 지위, 영향력,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으며, 인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명성이 더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치와 죽음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비방, 조롱,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에게 자신을 결속시키겠습니까?

성경 주석가 데이비드 E. 갈랜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인간에게 더욱 불쾌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E. 갈랜드, 고린도전서, 63페이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고린도의 헬라인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데에 많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의 파워 랭킹을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교적 지혜가 거짓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진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간의 지혜의 범주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트로 밴쿠버의 파워 랭킹도 뒤집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사회가 매우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노예, 해방된 자들, 귀족).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와 해방된 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비록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난주 빈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다투는 이유가 그들이 고린도의 이상과 가치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자이기보다는 고린도인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워 랭킹을 뒤집기 위해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십자가의 도"와 경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 권력, 그리고 지위 추구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고린도와 메트로 밴쿠버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의 지혜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사람들을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에 따라 나눕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DEI 전략과 교차성 대화, 반인종주의 담론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더욱 분열되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할까요? "권리는 사랑이 실패했다는 인정이다"라고 마가렛 코틀 박사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함으로써 죄, 죽음,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를 부수고 그 가치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말살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어색하다고 해서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의 죄(교만, 이기심, 자기중심성, 자기만족)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 따르는 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죽고 (부, 지위,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됨),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신자들이 자신에 대해 죽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월링던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중심에 두면 우리는 천 갈래로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교회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려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려한 지혜의 세 번째 예시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려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것은 그분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려함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다!" 너희는 (3) 미려한 구성원들입니다.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분명히 '사회 상류층'이 아니었다. 너희는 너희가 배운 지혜, 정치적 권력, 물질적 부, 그리고 엘리트 가문을 자랑할 수 없다! 회심 전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27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려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를 세 번 강조합니다.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은 26절에 묘사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고귀한 자들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하찮고 주목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 사상에서 이것보다 더 경멸적인 표현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존재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경멸 받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고린도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입니다.

저자 제러드 윌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제러드 윌슨, 죄인들의 친구와의 우정, p. 73).

선교사 애드리언 펜너는 미얀마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근 저는 외딴 산촌을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문맹이고 집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매일 이웃들을 현관으로 초대하여 작은 태양광 오디오 성경을 들려주는 한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 귀한 가족이 더 많은 불교도들을 복음화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전 세계에 선포됨에 따라 종종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에 더 쉽게 반응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고 엘리트이며 권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뒤엎고 역전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힘찬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구속은 또한 마지막 큰 날, 모든 것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려한 지혜의 본보기입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미려한 방법과 우리가 받은 미려한 메시지와 미려한 구성원이 되도록 받은 초대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려한 지혜를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묵상 질문

1.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흡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상생활(직장, 가정, 공부 등)을 하면서 십자가의 지혜가 미려하게 보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3. 현재 당신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미려함을 살어내고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1.